

## 지역 향토산업 육성사업 실태와 정책 방향

고 경 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 khko0419@dankook.ac.kr

이 상 윤

단국대 대학원 석사졸

이 연구는 클러스터 관점에 입각하여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쟁점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CONTENTS

1. 향토산업이란?
2. 향토산업 정책동향 및 추진성과
3. 사례대상 사업 현황
4. 사례대상 육성사업 실태분석
5. 정책 제언

### 요 약

- ◀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성장, 1980년대 이후 농업시장 개방 확대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심화됨.
- ◀ 농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채택된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에 따라 출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 사례를 클러스터 관점에서 조사·분석한 후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 향토산업 육성사업 본격 추진 이후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사업의 지속성 및 성장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발생하기도 함.
- ◀ 사례대상 사업의 경우 관련 주체들 간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전문가 참여 미흡, 공식적·비공식적 연계구조 및 상호작용 미흡, 사업단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역량 강화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효과성 미흡, 판매망 구축 기반 취약,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략과 추진역량 부족 등이 방해요인으로 나타남.
- ◀ 정책 개선방향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선정단계, 사업기획 및 사업추진 단계, 진행상황 점검과 평가단계, 자립화 등 각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강화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조, 상호협력 기반인 협의회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함.



# 01

## 향토산업이란?

### 1. 향토산업의 개념

- 향토산업의 개념은 학문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 향토산업은 ‘일정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지역의 특성있는 자원’ 또는 ‘향토자원’을 활용한다는 점,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는 공통점을 지님.
  - 농림수산물식품부(2005)는 “일정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특성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농촌진흥청(2010)은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 향토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겨지는 향토자원에 대한 개념 역시 행정목적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2011)는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성 또는 전통성을 지니면서 경제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역의 자연환경은 물론 문화적 배경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집단화되어 있거나 고유한 특징을 지닌 자원”으로 정의함.
  - 이동필(2007)등은 “특정지역에 주로 존재하고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며 지역의 생활과정을 통하여 토착, 계승되어 온 생활양식과 이를 구성하는 자연자원, 재화, 기술, 문화 등을 포함 한다”고 정의함.

### 2. 등장배경

-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의 압축 성장, 1980년 이후 지속적인 농업시장 개방 확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붕괴위기가 심화됨.
  -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성장률 및 농가 수익성 악화, 도·농간,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등이 발생함.
  - 1990~2013년 연평균 농업부문 GDP 성장률은 3.0% 수준으로, 국가 전체 GDP 성장률 9.2%의

3분의 1수준이며 국가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6.8%에서 2013년 1.8% 수준으로 크게 감소함.

- 또한 식량자급률도 1970년 80.5% 수준에서 2013년 23.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도 1990년 97.4% 수준에서 2013년 63.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함(KAIST, 2017).

- 농촌 등 낙후지역 경제의 최소기반마저 붕괴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농외소득 개발 추진, 다양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적극 장려하였으나, 농촌발전전략의 목표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많은 비판과 반성이 제기됨.

- 농촌의 붕괴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 농산물 가공공장 건설 등 농외소득 개발 사업을 추진함. 1980년부터는 외부기업의 집단적 유치를 기반으로 하는 농공단지조성사업과 관광농원 등 휴양자원 개발사업 등 비농업부문인 2·3차 산업의 유치를 통하여 낙후성 극복 추진 (한광식 외, 2011).
- 그러나 도시로 인구유출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노동력 부족과 노임, 지가 상승 등은 외부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발전전략의 목표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을 담보해내지 못함.

- 이와 같은 반성 속에서 지역 중심의 스스로 지역 내 일자리와 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발전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생성됨.

- 2000년대 이르러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과 외부자원의 일방적 유치보다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에 의한 향토산업 육성을 전략적 목표로 제시함.
- 이와 같은 전략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아젠다인 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2007년부터 본격 추진됨. 지난 10년간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결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 하면서 낙후지역 발전에 매우 유효한 수단임이 확인됨.

## 1. 향토산업 정책동향

-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31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촌융복합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의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2007년부터 본격 추진됨.
- 이 사업은 1960년 중후반부터 추진되었던 농외소득 정책추진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 1,2기(1967-1982)에서는 농촌의 잠재실업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부업을 통한 농한기 생산화작업 추진, 농외취업 부문에서는 새마을공장 건설사업의 추진, 농외사업에서는 농어촌부업 단지육성을 위한 소규모 과수, 중소가축사육, 전통수공업 및 위탁가공업 등이 진행됨.
  - 제 3기(1983-1989)에서는 외부로부터의 기업유치 등 농촌공업화를 통한 농외소득증진정책이 추진됨. 그러나 이농의 심화로 노동력 감소와 지대 상승으로 정책의 이점을 얻지 못함.
  - 제 4기(1990-2001) 이후에는 외부기업 유치를 통한 농외소득 개발방식을 탈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됨.
  - 제 5기(2002-현재)부터는 내생적 발전전략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본격 추진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이와 같은 농외소득 개발정책으로부터 전개되어온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공조·협력관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서는 농림수산물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이 역할에 따른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물부는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추진.
  - 신활력사업은 지역민의 강점을 발굴, 특화 상품화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이며,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2. 향토산업 추진성과

-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참여농어가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 2009~2011년에 시행된 28개 향토산업 육성사업 평가결과, 사업시작 연도보다 사업종료 시점에 나타난 참여기업의 매출액은 52%, 일자리는 46%, 참여농어가 소득은 32%로 증가함. 이 기간 동안 약 8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년 간 최대 2197억 원의 산출을 기록함.
  - 지역발전 기여정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조사대상 응답자(공무원 및 사업 참여기업, 실무담당자 등 531명)의 73.3%(무응답 32.4% 제외 시)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발전 기여도는 5점 척도에 평균 3.85점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다양한 애로사항들도 발생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관련기업의 영세성과 역량부족’이 가장 큰 애로이며 그 다음으로 ‘시장 확보의 어려움’, ‘시·군단위의 계획수립 미흡’ 등의 순임.
  -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전문가의 자문지원’,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경상비 지원’이 가장 높음.
  - 이와 함께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예산증대 및 사업비 모니터링 강화, 제품에 대한 홍보강화 및 자원발굴에 대한 지원 확대, 주민참여 유도 확대, 실질적인 컨설팅 제공, 사업 참여주체들의 역량 강화, 사업기간내 공무원 인사이동 자제, 민간주도 육성 및 자율성 보장,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립화와 사업화 유도 등이 제시됨.

## 03

# 사례대상 사업 현황 : 지역 농산물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사례

## 1. 사업 개요

- 향토자원인 ‘OO배’를 활용한 생산과 유통, 체험·관광 등의 가치사슬 연계와 융·복합을 통하여 농촌의 새로운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 정상과와 비교하여 사실상 맛과 품질은 동일하나 외형적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비매과(생산량의 20%)를 주 가공원료로 설정함.
- 육성사업 기간인 2014-2017년까지 4년에 걸쳐 국비 15억 포함하여 지방비 9억 원, 자부담 6억 원 등 총 30억 원이 투입됨.
- 사업 참여주체는 자립화 법인과 협동조합, 3곳의 대학, 작목반 및 연구회 등 생산자, 시와 농업기술센터 등 산·학·관·민임.
- 추진체제로 사업단내에 운영위, 자문위, 실무추진단이 구축돼 있으며 사무국에 상근 사무국장 1인과 실무자 1인 등 모두 2명의 실무인력을 둠.
- 사업단의 핵심 사업으로는 사업단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가공제품 생산시설 및 가공라인 구축 사업(2,000㎡) 등이 있음.
- 육성사업을 통하여 폐과율 감소와 함께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수요증가에 따른 원료소비의 증가효과(1차 산업), 배 가공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가공산업의 매출증대와 환원효과(2차 산업), 지역관광자원 등과 연계된 농의소득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3차 산업)

등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효과 창출을 기대함. 목표로 육성사업 종료 후 연 가공매출 50억 원 달성, 농가소득 10% 증대가 제시됨.

## 2. 사업 추진전략

- 상품성이 저하된 과실 중 ‘Global GAP, 국내 GAP 인증배’를 원료로 사용하고, 생산자 및 가공 참여자 역량강화를 통하여 고품질 과실생산과 가공품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반제품 원료시장을 주 타깃으로 설정하고 배 가공품의 특성화 추진, 생산현지에 가공시설을 구축하여 안정된 원료와 가격, 수요를 확보함.
-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1차년도(2014) 가공산업 및 마케팅 기반 구축, 2차년도(2015) 가공 설비 및 내수기반 구축, 3차년도(2016) 가공제품 홍보 및 전국 유통망 구축, 4차년도(2017) 지속적인 영리법인 기반 구축이 제시됨.

[표 1] 중장기 추진전략

사업년도	사업구분	사업내용	추진전략
2014	사업단운영	· 사업단 실무자 채용 · 사무국 출범 · 가공 산업 기반 조성	· 사업단 운영 및 가공 산업 기본 계획 수립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 재배·가공 심화역량강화 · 리더 양성, 마케팅교육 ·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 경영컨설팅 및 모니터링	· 배산업아카데미 운영(GAP, HACCP, 안전식품 생산 심화 및 리더 양성 교육) · 네트워킹, 경영컨설팅 및 모니터링
	연구개발	· NFC type 주스 제품 개발 · 체험 상품 개발	· 신규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 배꽃축제개최, 박람회 및 축제참가 · 쇼핑몰제작 및 유통프로모션 · 브랜드 광고	· 브랜드광고, 축제 및 박람회 참가 판촉 홍보 행사 · 온라인쇼핑몰 구축,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대중매체 홍보
2015	사업단운영	· 사업단 운영 및 행정 지원 · 가공 산업 설비 구축	· 가공 제품 생산 및 판매 계획 수립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 유통·마케팅 심화역량강화 · 리더 양성, 벤치마킹, 세미나 참석 · 네트워크 구축 · 워크숍, 경영컨설팅 및 모니터링	· 배산업아카데미 운영 (심화 및 리더 양성 교육) · 네트워킹, 경영컨설팅 및 모니터링, 세미나 및 워크숍을 활용한 유통네트워크 구축

사업년도	사업구분	사업내용	추진전략
2015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퓨레 및 건조과 제품 개발</li> <li>· 지식재산권 권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 제품 개발</li> <li>· 지적재산권 확보</li> </ul>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조사분석</li> <li>· 마케팅전략수립, 각종매체광고</li> <li>· 홍보영상제작, 소비자 및 바이어 초청</li> <li>· 배꽃축제개최,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 등 판촉행사</li> <li>· 쇼핑몰운영, 유통망프로모션, 지적재산권 권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케팅전략개발, 브랜드광고</li> <li>· 소비자 및 바이어 초청 상품 설명, 배꽃축제개최, 판촉홍보 행사, 온라인쇼핑몰구축, 유통망활성, 지적재산권 출원</li> </ul>
2016	사업단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단 운영 및 행정 지원</li> <li>· 가공 설비 구축 및 사업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 제품 생산 및 홍보·마케팅</li> </ul>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유통·마케팅 심화역량강화</li> <li>· 리더 양성, 선진지 견학,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자립화 컨설팅 및 피드백 시스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화 및 리더 양성 교육</li> <li>· 선진지 견학, 네트워킹, 법인 자립화 방안 강구</li> <li>· 자립화 컨설팅 및 피드백 시스템</li> </ul>
	연구개발	—	—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매체광고</li> <li>· 소비자 및 바이어 초청</li> <li>· 배꽃축제개최,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 등 판촉행사</li> <li>· 쇼핑몰운영 및 유통망프로모션</li> <li>· 지적재산권 권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케팅전략개발, 브랜드광고, 소비자,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li> <li>· 배꽃축제개최, 판촉홍보행사</li> <li>· 온라인쇼핑몰구축, 유통망활성, 지적재산권 출원</li> </ul>

출처: 00배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사업 계획서(2013)

- 그동안 사업단은 자립화 법인에 참여할 주주모집과 각종 위원회 운영, 홍보·마케팅, 연구 개발, 가공시설 구축,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평가환류시스템 운영, 사업의 자립화 등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

## 04

# 사례대상 육성사업 실태 분석

## 1. 조사개요

- 연구조사·분석은 육성사업 현황과 육성사업 활동 실태분석 등을 3개의 대분류와 13개의 소분류로 나누어 실시함.
  - 일반현황은 사업추진 배경, 사업개요, 주요 사업내용, 사업추진 주체 및 체계, 추진전략, 추진성과 등의 순으로, 활동실태는 육성사업 여건분석,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체계 형성과정 분석, 사업단 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 분석, 사업단 활동분석, 사업내용 분석 등의 순으로 정리함.

## 2. 실태조사 결과분석

-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산·학·관·민 등 다양한 연관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결합시키는데 상당한 한계를 보임.
  - 산업지원기능과 역할을 수행할만한 전문가 및 연관지원기관 등의 참여가 전무하여 실질적인 복합 사업단 취지에 부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단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 분석에서 보면, 사업단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와 실무추진단 등 두 위원회를 통틀어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가 전무함.
  - 사업단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일부 컨설팅과 시장개척 자문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나 충남창조경제센터 등도 공식적인 체계에 참여하지 못함.
- 사업단내 참여주체 및 체계 분석과 관련하여, 사업단은 사실상 행정과 생산자가 독점적 위치 점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산업지원기반 전문가의 참여가 전무하여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임.

- 전문가 참여구조인 자문위원회도 관련 위탁이나 용역을 수행할 뿐, 회의 참여의지와 네트워킹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임.
- 참여주체들 간 또는 외부 관련주체들 간의 공식, 비공식 활동을 통하여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조정·협력·결정 등이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수평적 연계구조가 취약함.
  - 외부 관련 주체들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연계활동은 단발적인 외부활동이나 용역 등을 제외하고는 원활하지 못함.
  - 간담회, 워크숍, 국내외 선진지 견학, 역량교육, 외부 컨설팅 및 용역 의뢰 등 외부와의 비정기적인 상호작용도 취지에 부합하게 설계되고 추진되었는지, 참여주체들의 혁신역량 강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는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됨.
- 사업단 역량부족 등으로 각종 추진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사무국의 인력 및 역량 부족으로 과중되고 있는 업무량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움.
  - 사업단의 주요 사업인 역량강화 사업도 교육의 방향 설정과 프로그램 미흡으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가공·유통 등 사업화 관련 협력관계 및 구조 구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제품의 차별성이 미흡하고 1,2차와 연계된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개발도 사실상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판매망 구축 기반과 홍보마케팅 관련 전략수립과 추진역량이 미흡함.

## 05 정책 제안

-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제안함

### 1.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단계

-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 공고에 대비하여 사업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와 평가 후 선정단계로 구분됨. 특정목적 아래 누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느냐와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이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시행기관인 시·군은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해당 향토산업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추진하느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조직해야 함.
- 특히, 계획수립단계에서 산·학·관·민 등 다양한 연관주체들이 상호협력에 기반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됨. 사업단내 각종 위원회에 일정 비율의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상호협력에 기반하여 다양한 연관주체들이 참여하였는지, 사업추진체계가 진정한 의미의 복합형 사업단에 부합하도록 구축되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함.
- 특히 사업타당성과 적정성, 실천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에서의 현장평가가 현재보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사업 선정에 있어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협력에 기반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체계는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해야 함.

## 2. 사업기획 및 사업추진단계

- 무엇보다 사업추진체계와 협력네트워크 형성, 부여된 사업의 기획단계가 매우 중요함.
- 시행기관인 시·군은 사업추진체계와 협력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구축·작동되는지, 그 체계와 네트워크가 진화·발전되고 있는지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함.
- 사업추진의 핵심주체인 사업단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비 현실화 등의 조치 및 전문가, 외부 협력기관 등이 사업단내 공식체계로 흡수,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모색해야 함.
- 사업기획에 있어 시·군은 육성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사전기획의 역할을 담당할 별도의 공식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함. 이 체계는 사업기획에서부터 사업추진 모니터링, 사업시행 후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점검하는 역할을 부여받아야 함.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는 사업관리자가 아니라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핵심 추진주체이자 촉진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추진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함. 특히 사업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기획조정기구로서 클러스터를 견인해야 함.

### 3. 진행상황 점검 및 평가단계

- 첫째, 육성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체계와 단계를 더욱 세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중간단계와 종합 성과평가 단계에서 실시되는 모니터링, 컨설팅 강도와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추진 중간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체계구축이 필요함.
- 둘째, 모니터링 및 컨설팅은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컨설팅 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방식이 필요.
  - 컨설팅과 관련하여 컨설턴트들이 빈번하게 교체되거나 또는 평가를 위한 1회성 컨설팅에 그칠 경우 일관성이 있는 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4. 자립화 단계

- 육성사업단의 자립화는 사업초기부터 계획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단 운영로드맵과 자립화 방안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전국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사업단의 존속여부와 함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단의 존속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사업단의 자립화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영리법인의 정상화와 자립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마인드와 역량을 갖춘 관련 기업과 해당 전문가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경영활동의 핵심 책임주체로 자리 잡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업·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영리법인의 경영은 매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요구되는 상당한 역량을 반드시 갖추어야 수행 가능함

## 5.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화와 협의체 건설

- 연관주체들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활동을 촉진하여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리얼 서비스와 기획조정 등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함.
  - 충남의 경우 6차산업화센터가 향토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음.
  - 시행기관과 사업단도 보다 적극적으로 6차산업화센터 등 외부의 협력지원기관 등과의 공식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함.
- 협의체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 사례와 성과, 지원자원 등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공동 학습을 통하여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건설될 필요가 있음.

고 경 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  
khko0419@dankook.ac.kr

이 상 윤

단국대 대학원 석사졸

\* 본 글은 충남연구원 전략과제(2017) “지역향토산업의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요약·재정리한 것임

- 김용렬, 2012,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성과와 정책 수요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가능성과 과제”, 「농업경영·정책연구」, 제 31권 제3호, PP. 514-534.
- 김현오·이관률, 2011, 「충남 향토산업의 육성방안」, 충남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0, 향토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농촌진흥청, 2006, 「지역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사례분석」.
- 박동진, 2012,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농업과학연구」 제39권 제4호, PP.619-628.
- 박성용·윤칠석, 2006, “향토산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안동·영주지역을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PP.1010-134.
- 산업자원부, 2002, 「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 정책 추진」.
- 손은일, 2012,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정책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제 18권 제4호, PP.1-12.
- 이관률, 2008, 「충남지역 향토산업 선정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충남연구원.
- 한광식·강석훈·최미진·김형주, 2011, “향토자원의 개념 및 분류체계의 적용실태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 25권 제2호, PP.141-167.